

# 21세기 한국 어린이·청소년 SF의 전복성 연구

## -보슬비 SF 추천작을 중심으로-

최배은(숙명여대)

### 1. 서론

환상문학과 SF의 차이로 SF의 정체성을 선명히 한 다르코 수빈의 견해<sup>1)</sup>가 상식처럼 통용되면 서도 SF는 여전히 환상문학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와 동떨어져 논하기 어렵다. 그것은 무엇보다 SF가 현실의 모방에 목표를 둔 사실주의 문학과 다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 현실의 모방이란 불가능하며, 이호의 말처럼,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의 모방”<sup>2)</sup>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독자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로 수용하게끔 쓰는 사실주의 소설과 그 반대의 소설은 양식과 표현 기법, 효용의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요컨대 현실의 모방이나 재현이라는 소설의 정의에 비춰볼 때 판타지와 SF의 차이는 그들과 사실주의 소설의 차이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즉 판타지와 SF는 현실을 사실과 다르게 재현하여 현실에 대해 말한다. 그래서 토도로프나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을 “많은 관련 장르들을 출현시키는 하나의 문학적 양식”<sup>3)</sup>으로 보며, SF를 경이문학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논의에서 SF는 부수적이며 예외적인 경향이 있다. 그들의 논의에서 환상은 우리를 안심시키는, 확실한 거짓말이나 착각이 아니라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함을 느끼고 지각하는 데서 발생하며, 그에 따른 두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즈메리 잭슨은 “환상성이 알레고리나 상징주의로 ‘자연화될’ 때 그것은 그 고유한 비-의미화의 본질을 잃는다”<sup>4)</sup>고 한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익숙하고 선명한 의미를 전달하여 어떤 머뭇거림이나 두려움도 주지 않는 환상은 그 본질에서 멀어진 것으로 본다. 나병철은 이러한 판타지를 세속화된 환상으로 보며, 대중문학이나 아동문학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본다.<sup>5)</sup> 이와 같이 20세기 이론가들은 “다소 경박하거나 형편 없는 것으로 무시되어왔던 문학 형식에 대해 진지한 비평적 작업을 고무시”<sup>6)</sup>키기 위해 문학성이나 예술성이라는 기준으로 작품들을 위계화하고 거기에서 벗어난 작품들은 소외시키는 모순된 태도를 보여왔다. 앞서 언급한 다르코 수빈도 SF를 본격문학의 범주로 편입시키기 위해 애쓰며, 그만큼 대중들이나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SF와 거리를 둔다.<sup>7)</sup>

하지만 21세기 현실에서 생각해 보자. 예술과 상품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기술과학이 우리의 상상을 압도하며, 이미 온갖 환상서사들이 창작되어 수많은 두려움들이 익숙해진 시대에 세속화되지 않은 환상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판타지의 인기는 식지 않고 더해가니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22년에 출간된 브라이언 애터버리의 『판타지는 어떻게 현실을 바

1)

2)

3) 로즈메리 잭슨, 17쪽

4)

5)

6) 이 말은 로즈메리 잭슨이 토도로프의 저작이 지닌 가치를 평가한 말이다, 14쪽

7)

꾸는가』<sup>8)</sup>는 그 탐구의 여정에서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책은 “판타지 문학의 본질은 계속해서 변한다”<sup>9)</sup>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그 표현처럼 브라이언 애터버리는 어떤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여 기준을 삼지 않고, 기존의 위계와 범주에서 벗어나 이제까지 존재해온 판타지 작품들과 관점들을 모두 아울러 수평적으로 논한다. 아홉 가지 관점으로 논하는 주제에는 신화도, SF도, 환상동화도, 유토피아 문학도, 구조주의적 관점도, 정치사회적 관점도, 젠더적 관점도 모두 같은 무게로 논의된다. 이들을 통합하는 핵심 질문은 판타지가 어떻게 의미 있는, 즉 진실이 될 수 있는가와 판타지가 무슨 역할을 하는가이다.<sup>10)</sup> 아동청소년 SF를 진지한 비평 대상으로 탐구할 때 이 관점은 유용하다. 덧붙여 이 관점은 아동청소년 SF가 진실을 말하는 판타지이며, 어린이·청소년 독자들뿐 아니라 이 세계에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지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로즈메리 잭슨은 문학에서의 환상성이 전복적 기능을 한다고 보아 환상문학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부각시킨 의의가 큰데, 그에 부합하는 장르로 어린이·청소년 문학을 들 수 있다. 어린이·청소년은 현재 사회적 약자로 그들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해 전복적 욕망을 가질 수 있는 한편, 미래의 어른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혁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빨간머리앤과 삐삐롱스타킹 연속물처럼 어린이·청소년 문학은 구습과 편견에 마비된 사회의식에 균열을 일으키고 대안을 모색하는 저항문학이자, 대안문학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이때 전복의 정도가 강할수록 환상적 요소도 커지게 된다. 빨간머리앤 연속물은 당시에 금기시되던 빨간머리의 고아 소녀를 주인공으로 하여 고아, 여성, 가난, 혈연 등 사회적 약자를 둘러싼 다양한 편견의 문제를 폭로하고 앤의 성장과정으로 그 편견이 거짓임을 입증한다. 앤은 지적이고 주체적인 어른으로 성장하지만, 개혁적인 인물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 사회 질서에 모범적으로 편입하는 인물이다. 그에 비해 삐삐는 어른의 보살핌 없이 자유롭게 생활하며 학교에도 가지 않는 매우 전복적 인물이다. 삐삐를 고아원에 보내려는 어른과 삐삐의 재산을 탐내는 도둑들과의 대결에서 삐삐는 언제나 유쾌하게 승리한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삐삐의, 집 한 채도 거뜬히 들 수 있는, 현실에선 불가능한 힘이다.

그렇다면 어린이·청소년 SF에서의 전복성은 그 양상이나 특징이 어떠한가? 가령 일본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의 주인공 코난은 삐삐처럼 어린이에게 불가능한 추리 능력을 부여했지만 그 방식은 과학 기술에 근거한다. 이런 점에서 추리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명탐정 코난>을 SF로 볼 수 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코난이 성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기, 복수 등 온갖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정신은 고등학교 남도일(신이치)이기 때문이다. 약당들이 개발한 약을 먹고 신체만 어린이로 변한 것이다. 또 어린이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 브라운(아가사 히로시)박사가 발명한 여러 기계장치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어린이·청소년 SF에서는 전복적 상상이 과학적 상상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또 다른 판타지들과 마찬가지로 현실 사회의 관계, 구조, 믿음 등을 전복시켜 현실 사회의 모순을 가시화하기도 하며, 잘 알려진 이야기 구조를 전복시켜 비판적 관점에서 대안 서사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어린이·청소년 SF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밝히는 비평을 지향하며,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21세기 어린이·청소년 과학소설을 대상으로 전복적 양상을 분석하며 그 특성 및 의의와 한계를 짚어 보고자 한다. 2000년

---

8)

9)

10) 6쪽.

대 이후 어린이·청소년 과학소설이 활발히 창작되지만, 그 양과 질의 측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때는 202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어린이청소년SF연구공동체플러스알파<sup>11)</sup>가 설립되어, 한 해 동안 출간된 어린이청소년SF를 최대한 조사, 검토한 뒤 가장 우수한 작품을 <보슬비 SF 추천작>으로 선정, 발표하기 시작했다. <보슬비 SF 추천작>은 어린이청소년문학 전문가들이 모여 공정한 선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논의한 결과로, 관련 작가, 편집자, 평론가, 연구자, 독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으며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2025년 <보슬비 SF의 밤>에서는 보슬비 SF 추천작 선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한 소책자 『어린이청소년SF에는 플러스알파가 있다 -보슬비 SF 추천작 선정 기준』을 발간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그 선정 기준<sup>12)</sup> 중 ‘다양성’은 ‘여성과 성소수자들, 나아가 비인간 존재들을 타자화하지 않은 성찰적·비판적·전복적 태도를 지닌 작품’이다. 즉 <보슬비 SF 추천작>은 출간되는 다양한 작품을 검토하고, 상업적 목적이나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어린이청소년SF의 사회적 가치를 널리 알리며, 그에 부합하는 작품으로 선정했기에 이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선정된 보슬비 SF 추천작은 어린이 SF 10편, 청소년 SF 11편으로 총 21편이다.<sup>13)</sup> 이 발표에서는 그중 특히 전복성이 두드러진 어린이 SF 『다락방 외계인』<sup>14)</sup>과 청소년 SF 『깊고 푸른』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이호가 제안한 “서사의 반복과 전복의 역학에 집중한 징후적 독서 방법”<sup>15)</sup>을 따르고자 한다. 징후적 독서란 스토리 요소들이 텍스트에 재현되는 과정에서 남긴 여과적 요소-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축소, 확대, 은폐, 생략 같은 다양한 여과 작용-들의 흔적을 추적하며 읽는 것이다. 징후적 독서로 우리는 작가나 서술자가 의식하지 않은 이데올로기에도 접근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서사 요소들을 서사 텍스트로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서술이 수행하는 반복과 전복의 역학”을 분석할 것이다.

## 2. 어린이·청소년 SF의 전복성

### 1) 지구 어린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다락방 외계인』

『다락방 외계인』은 사업이 망하거나 전쟁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이들의 절박하고 치열한 생존 이야기이다.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작된 SF이지만, 우리 삶과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이 배어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게 하고, 타인을 구함으로써 구원받게 되는 진실을 설득력 있게 재현한다.

『다락방 외계인』에서 반복 서술되는 사건은 집에서 내쫓기거나 그럴 위기이다. 위기가 닥친 인물별로 그 서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노아	외계인	삼촌
① 아빠는 치킨 가게를 열고 열심히 일했지만 쫓막 망했어.	③ 어느 날 갑자기 검은 군대가 내가 살던 별과 집을	

11)

12)

13)

14)

15) 17쪽.

결국 집과 직장을 잃은 아빠는 외국으로 돈을 벌러 가게 되었지.(12쪽)	빼앗았어. (37쪽)	
②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미개한 지구에 있지만 날 구할 우주선이 곧 올 거야. 그때까지 누추하고 더러운 여기에 있어야 하니까 넌 여기서 나가. 이건 명령이야.(29쪽)	④ 노아는 삼촌이 딴 곳을 보는 사이에 열린 치르의 더듬이를 잡고 창문을 열어 밖으로 던져 버렸어. (31-32쪽)	
⑤ 노아는 외계인들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 삼촌한테 들키면 모두 쫓겨날 테니까 말이야. ⑥ “당장 내 집에서 나가!”(70쪽)		
⑦ “집에 이상한 아저씨들이 와서 우릴 쫓아낸대요.”(79쪽) ⑧ “외계인은 자기 별로 돌아가라!”(97쪽) ⑨ 삼촌은 식당에 다시 출근했지만 며칠 뒤에 쫓겨났어.(100쪽)		

아홉 살 어린이 노아는 아빠의 치킨 가게가 망해서 집을 잃고 할아버지 동생의 아들인 삼촌에게 맡겨진다.(①) 삼촌네 다락방에서 지내게 된 첫날, 노아는 링가별에서 온 외계인 치르에게 방에서 나가라는 도전을 받는다.(②) 하지만 소시지처럼 작은 치르는 큰소리만 칠 뿐 힘은 없어서 노아에게 위기감을 주지 않는다. 다락방에서 지내는 노아와 외계인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집 주인인 삼촌이다. 외계인들의 존재를 발견한 삼촌은 노아와 외계인들에게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친다.(⑥) 노아와 외계인들이 맞닥뜨린 첫 번째 위기가 바로 이 사건이다.

치르는 링가별 지도자인데 우주를 정복하려는 검은 군대에게 자기 행성을 빼앗겨 삼촌네 다락방에 은신 중이다.(③) 처음에는 노아로부터 다락방을 빼앗길까봐 견제하지만, 노아의 도움을 받고부터 노아와의 동거를 수용한다.(④) 즉 치르와 노아는 삼촌이라는 공동의 적대자 앞에서 연대한다. 하지만 삼촌도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직장에서 쫓겨난다.(⑦, ⑨) 이 반복은 쫓아낼 권한을 가진 자를 쫓겨나는 자로 전도시킨 사건으로 이후 여러 전복적 사건의 기점이 된다. 그리고 삼촌의 위기는 노아와 외계인들의 위기이기도 하므로, 집 밖의 적대자 앞에서 집 안의 삼촌, 노아, 외계인들은 연대한다.

이 작품 내에서 성격이 가장 전복적으로 바뀌는 인물은 삼촌이다. 집 주인의 권한으로 폭언과 압제를 행사하던 삼촌이 집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자 노아처럼 약한 모습을 보인다.

삼촌은 울먹이며 고개를 흔들었어. 삼촌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는 것 같았어... (중략)...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나를 떠나. 엄마도, 메리도, 이젠 집도 떠나네.” 노아는 좋아하는 건 모두 떠난다는 삼촌이 불쌍했어. 혼자 남은 노아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 노아는 삼촌 등을 토닥였어. 노아의 위로에 삼촌은 더 크게 울었어.(87-89쪽)

위와 같이 무력해진 삼촌을 동정하며 등을 토닥이는 노아의 모습에서 어린이와 어른의 위치가 뒤바뀐 듯한 느낌이 든다. 노아는 코난이나 뽀빠처럼 어른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내고 노아가 어른을 구하는 전복적 인물이다. 노아는 타인의 위기 앞에서 구하는 행동을 반복한다.

노아가 처음 구한 인물은 치르이다. 치르의 나이가 제시되지 않지만 링가별 지도자라는 신분을 볼 때, 치르도 어른임을 알 수 있다. 삼촌에게 붙잡힐 뻔한 치르를 창문 밖으로 내던져 구한 것이다. 그럼에도 노아는 치르를 쫓아낸 게 마음에 걸려 만약 노아네 집에 갈 곳 없는 누군가가 온다면 절대 쫓아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 이와 같이 노아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 덕분에 타인을 구한다. 외계인 푸푸에게 창문을 열어 주고 라이들을 막지 않은 것도 다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치르가 소시지처럼 작고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삼촌이 고압적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즉 이 이야기에서는 어린이를, 구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 어린이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는 대신 어른의 힘을 빼는 전략을 사용한다. 약자가 되어버린 어른은 더 이상 어린이를 무시하거나 그 위에 군림하려 들지 않고, 동등한 주체로 연대하고 의지한다.

사실주의 소설에서 약자 어른은 소년소녀 가장과 짝을 이루어 등장하며 어린이·청소년의 희생을 초래한다. 하지만 『다락방 외계인』은 외계인을 등장시켜 연대의 힘으로 희생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든다. 외계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집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먼저, 집 밖 사람들의 외계인에 대한 편견과 공포심을 이용해 외계인이 있는 한 이 집을 함부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지만 외계인에 대한 편견은 외계인과 함께 사는 삼촌에게까지 미쳐 삼촌을 실직자로 만든다. 이 위기는 바로 외계인들이 가진 능력을 상품화해서 해결한다. 푸푸는 어떠한 고민이나 불행감을 가진 이들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치유할 수 있고, 라이들은 고장난 사물을 고칠 수 있다. 편견과 두려움으로 찾아오지 않던 손님들은 한 명의 절박하고 용기 있는 손님의 소비 사례로 이용자가 많아진다. 푸푸와 라이들의 능력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삼촌은 집도 다시 살 수 있게 된다. 구름 같고 소시지 같고 까만 별 같이 귀여운 형태에 돈을 벌어 지구인을 먹여 살리는 외계인이라니 세속화된 외계인이 틀림없다. 그렇다고 그들이 주는 감동과 진실이 약화된 건 않는다. 오히려 외계인 이야기에서 반복되어온 지구인보다 강한 침략자 이미지를 전복시킨 약자 외계인은 독자와의 거리를 좁힌다. 즉 어른뿐 아니라 외계인도 약자로 전복시켜 어린이가 구하고 연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

강한 이미지의 어른, 지도자, 외계인을 약자로 전복시킨 매개는 바로 집이다. 집을 잃는다는 것은 주거 공간의 상실 이상으로, 말해지지 않은 다른 많은 서사가 잠재된 사건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갑자기 한밤중에 다른 나라에 납치되어 집을 잃는 사건이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것처럼 집을 잃는 사건은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실성을 얻는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모습의, 지구인에게 결핍된 능력을 가지고 큰 도움을 주는 난민 외계인은 우리 사회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사회적 의의가 크다.

노아가 처음 아빠 손에 이끌려오면서 본 이 집은 외눈박이 괴물의 집이었으나, 노아가 집 잃은 자들에게 한자리씩 내어주니 서로를 살리는 온기 가득한 공간으로 바뀐다.

밤이 되자 창문이 깨진 1층은 냉장고 속처럼 추웠어. 모두 추위를 피해 다락방으로 올라갔지. 외계인들과 노아와 삼촌은 한 이불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버텼어.(87쪽)

위의 인용은 집의 성격이 전복되는 순간을 가장 잘 드러낸 서술이다. 외부인의 침입으로 1층 자기 방마저 이용할 수 없게 된 삼촌은 이제 집 주인이 아니라 똑같이 집 잃은 자가 되어 노아와 외계인들의 공간에 자기 한 몸을 의탁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다락방은 매우 비좁지만 집 잃은 자들을 모두 수용하고 살리는 ‘노아의 방주’로 기능한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어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어린이 노아의 이야기로 전복하면서 위기의 세계에서 어린이의 의의

를 환기시킨다.

## 2) 디스토피아 기계 기술자 심청의 여성 청소년 성장 이야기 「깊고 푸른」

「깊고 푸른」은 고전소설 『심청전』을 SF로 다시 쓴 작품이다. 인신공희설화를 바탕으로 효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심청전』은 한때 교과서에 실리며 어린이, 청소년의 필독서로 권장되어 왔으나 1990년대 이후,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페미니즘 운동이 확산되면서 비판적 관점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제 교과서에서도 잘 다루어지지 않으며, 비판적 관점에서 다시 쓴 재창작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sup>16)</sup> 「깊고 푸른」도 그러한 시도 중 하나인데, 신화적·봉건적 세계관에 기반한 고전소설을 SF로 변형했다는 점에서 전복적 상상력이 두드러진다. 즉 이 작품은 『심청전』을 반복하며 전복한 이야기이므로 그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작품의 제목 「깊고 푸른」은 ‘심청’을 한글로 풀어쓴 것 같지만, 고전소설과 그 뜻이 다르다. 『심청전』의 심청(沈淸)은 성씨 심으로도 쓰이는 ‘잠길 침’과 ‘맘을 청’으로 이루어졌다. 沈淸이 바닷물에 잠기며 욕심 없는 인물의 특징을 드러낸다면, 「깊고 푸른」은 작품의 주요 공간인 인당수를 나타낸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심청이란 이름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박애진 작가가 ‘작가의 말’에서 밝힌 것처럼 옛이야기에서 “마냥 수동적이었던 원작의 인물들, 특히 여성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인물로 재창조”<sup>17)</sup>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 작가는 용왕님을 두려워하는 신화적 세계를 기술 과학이 지배하는 디스토피아 세계로 전복시킨다. 심청이 아버지의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인당수에 뛰어드는 사건은 반복하지만, 그 인과성을 형성하는 사건을 변형시키며 운명적인 요소를 최소화한다. 그 대표적인 제재가 ‘눈’이다.

본래 이야기에서 사건의 발단은 맹인 심학규가 눈을 뜨고 싶어 스님에게 공양미 삼백 석을 약속한 일이다. 즉 이때 시각장애는 운명적인 일이고, 그 해결도 신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깊고 푸른」에서는 ‘눈’의 성격을 전복하여 이 사건을 인간의 능력과 의지에 따른 문제로 바꾼다. 여기서 심청의 아버지 눈은 인공물로 훌륭한 품질을 갖춰 누구나 탐내며 양도나 탈취가 가능하다. 그 눈은 심청의 할머니가 인당수 아래에 있는 광산에서 찾아온 것으로 아버지에게 물려준 것이다. 심청의 집안은 대대로 부품 수리 기술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희미한 불빛 하나까지도 모조리 빨아들여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게 해”(11쪽) 주는 그 눈은 가보라 할 수 있다. 아버지도 언젠가 심청에게 물려주려고 애지중지하던 그 눈을 정부고위 기술자가 드라이버로 빼 간다.(16쪽) 즉 「깊고 푸른」에서 아버지는 지배 계급의 약탈로 눈을 잃는다. 이 변형은 심청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아버지 개인의 시련과 근심이 아니라 탐욕스런 지배 계급이 만든 부조리한 사회 구조로 확장시키며 갈등의 성격을 바꾼다. 거기에 심청이 목숨을 걸고 인당수로 들어가 해결해야 할 과업이 이 사회 전체의 존속과 관련된 일이기에 심청의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모험은 곧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 된다.

『심청전』을 SF로 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자연에서 운명을 점치며 자연의 자비를 구하던 사회를 자연을 상실한 채 기계 문명에 의존한 디스토피아 사회로 바꾼 점이다. 두 눈을 드라이버로 빼 가고, 다리를 다치면 막대기 같은 도구로 끼워 넣거나 손목이 아프면 나사를 조여서 해결한다. 그렇다고 이들이 안드로이드 같은 완전한 기계 인간은 아니다. 몸속에는 피

16)

17) 박애진, 임태운, 김이환, 정명섭, 김성희, 『당신의 간을 배달하기 위하여』, 사계절, 2022, 81쪽.

가 흐르고, 음식물을 먹어 소화시켜서 힘을 얻기 때문이다. 즉 이 세계는 과학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인간의 몸에 기계장치나 온갖 인공 시술이 가능하여 사이보그가 보편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필요한 부품을 구하고 시술받을 수 있는 재력과 지위만 있으면 특고위처럼 젊은 모습으로 100년을 훌쩍 넘겨 살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유지도 어려운 매우 불평등한 사회이다. 30년 전 일어난 대폭발로 병크 속에 갇혀 살게 된 이후, 태양과 농사 지을 땅을 잃어서 사회의 생산력은 더 떨어지고 생존 여건은 척박해진다. 그럼에도 이 사회의 지배층인 정부 고위들은 주민들을 협박하고 착취하여 변함없는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러한 설정은 너무 전형적이라 진부하다. 그러나 그 교묘한 착취 구조와 그에 순응하는 사람들의 기회주의적, 이기적 태도가 우리 사회의 일면을 풍자하고 있어 진실성을 획득한다.

“아빠 솜씨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어. 짜면 뭐 해. 제대로 고치지를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당한 마을이 한둘이 아니라더라. 자유 시장 원리에 따라 값이 싼 가게에 가는 게 당연한 거라냐? 너 자유 시장 원리가 무슨 말인지 아니?”

“처음 들어요. 정부 고위들은 곰팡이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거무죽죽한 말을 퍼뜨려요.”

“나도 얼마 안 남았다. 정부 고위가 여기에 바리 빵집을 만든대.”

하마터면 드라이버를 떨어뜨릴 뻔했다.

“윗마을에 빵집 주르를 만들어서 원래 있던 빵집이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윗마을이나 다른 마을들은 그래도 우리보다는 형편이 나은 곳들이었어. 우리 마을처럼 작은 곳에 뭐 뜯어먹을 게 있다고 달려드는지…….”(26-27쪽)

위의 인용은 청과 빵떡 할머니가 풍부한 자본을 가진 정부 고위들이 점차 시장을 확대하여 작은 가게들이 문 닫는 상황을 걱정하는 말인데,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상기시킨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연상시키는 ‘바리’와 ‘주르’는 이 대화를 더 우리 현실의 알레고리로 읽게 한다. 한편 이 병크를 만들고 광산을 폐쇄시키며 지배해온 이들을 과학자들로 설정해 과학 기술에만 의존하는 태도와 과학자들이 지배하는 세계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대폭발 이전에는 과학인들이 보통 인간들을 다스렸어. 그중 우수한 과학인들이 대폭발을 예견하고 병크를 지었지. 병크는 기술구역인 광산과 지금 우리가 사는 주거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 예상대로 대폭발이 일어났지만 인간은 과학인들의 보호 아래 병크에서 평화롭게 살았지. 그런데 소수의 과학인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려 병크 바깥에 있는 비사망인들을 데려오려 한 거야. 하필 그자들 중에 기계공학, 광산을 다스리는 유사지능 과학인들이 끼어 있었지. 그들이 내부에서 광산을 폐쇄했어. 세월이 흐르고 과학인들이 하나둘 죽자 그들의 기술도 사라졌지.

특히 위와 같이 유사지능 과학인들, 곧 인공지능이 광산을 폐쇄한 사건은 오늘날 범용인공지능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킨다. 하지만 「깊고 푸른」에서 과학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가 보수적이고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대폭발을 예견한 과학자들 덕분에 인류는 절멸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잠수병으로 죽을 위험에 처한 청도 인공지능 수룡이 살려주었다. 『심청전』과 비교하면, 바다를 관장하던 용왕님이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수룡으로 전락했지만, 심청을 구하는 역할은 반복된 것이다. 즉 과학이나 과학자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 타락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깊고 푸른」의 병크는 물질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이다.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

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남을 어떻게 챙긴단 말인가”(16쪽)라고 세상 탓을 하며 양심을 버린다. 이런 사회에서 사회화는 반사회적인 태도를 조장하므로 온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은 약게 살아야 해”(9쪽), “요령껏 살라고”(15쪽), “못 본 척하라고”(15쪽)라는 조언들은 의미심장하다. 청이에게 양심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살라고 교육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것은 우리 사회 어른들의 처세이자 자기가 지켜주고 싶은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암암리에 주입하는 태도를 모방한 말이어서 진실성을 획득한다. 즉 청이 놓인 표면적 문제 상황은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와 세상을 구하는 일이며,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는 『심청전』의 모순을 좀 더 확장해서 반복한 일이다. 하지만 심층에서는 『심청전』의 모순을 전복한다. 『심청전』에서 청이 맞닥뜨린 상황과 행동은 그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충돌하지 않지만, 「깊고 푸른」에서는 충돌한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거역하고, 자기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해야 아버지와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깊고 푸른」은 『심청전』의 희생 서사를 저항 서사로 전복하며 부조리한 사회에서 제대로 성장하는 길은 순응과 적응만이 아니라는 진실을 보인다.

한편, 부조리한 사회에서 보신주의적 태도가 신념의 문제라기보다 약자의 방어적 태도임을, 그렇게 강자의 이기심과 약자의 이기심이 같지 않음을 나타낸다.

“아빠는 약게 살지 않았다. 가지고 있는 걸로 해줄 수 있는 만큼 하며 살았다. 이제껏 내 앞에서 같지도 않은 허세를 떨어왔을 뿐이었다. …(중략)… 약랄하게 사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57쪽)

위의 심청의 말처럼, 심청의 아버지는 말로는 심청을 걱정하여 이기적으로 살라고 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였던 공장 동료도 심청이 인당수 깊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자, 15분 동안 버틸 수 있는 소형 산소통을 전해준다. 그리고 심청은 그 산소통 덕에 고장 난 연구소 기기를 고쳐서 병크의 덮개를 열어 태양과 자연을 회복시킨다. 이 작은 연대의 행동은 청소년 독자들에게 이웃과 사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나아가 “약게”, “요령껏”, “못 본 척” 살지 않은 청이가 이 사회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며 새 시대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전도된 가치를 다시 전복한 의의가 있다. 이런 점에서 「깊고 푸른」은 여성 청소년의 희생서사를 영웅서사로 전복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 심청의 영웅성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대개의 영웅들이 갖는 권력욕이나 야망이 심청에게 없기 때문이다. 심청을 궁지로 몰고, 주민들을 착취하던 특고위, 정부 고위, 그리고 군인들은 심청이 데려온 안드로이드들의 코드 공격으로 일거에 무력해진다. 싱거운 정도로 무력해진 그들에게 심청은 복수논커녕 별 관심이 없다.

충은 작동하지 않았다. “마, 말도 안 돼! 특고위께서 새로운 세상에 맞는 법을 만들 거야.” “그런 법당신들이나 지켜요!” 인당수에서 연구소가 떠오르며 연구소로 가는 다리가 해변까지 이어졌다. 청은 마을 사람들에게 손짓했다.(78쪽)

정부 고위 기술자가 이미 무너져버린 특고위의 권력에 기대 청을 협박해보지만, 청은 한마디로 무시한다.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청의 승리나 영웅성을 드러내기보다 그런 부조리한 권력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청이 성장했음을 보일 뿐이다.

###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1세기 한국 어린이·청소년 SF는 보다 새롭고 의미 있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여러 전복적 시도를 하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점은 한국 어린이·청소년 SF가 현실의 사회문제를 진지하게 반영하며 그 해결의 주체로 어린이, 청소년 인물을 창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SF 속 어린이, 청소년은 대부분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난제를 양심과 용기, 연대의 힘으로 해결한다. 이 점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어린이·청소년 SF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점과 다르며, 한국의 어린이·청소년문학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희생서사 비중이 적지 않았던 점과도 다르다. 이는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약자나 보호의 대상, 혹은 어른들의 이념을 주입시키는 사회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성장하는 주체로 여기며 그 기대감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문제와 결부된 주제 의식을 탐구하는 작품들로 어린이·청소년들의 무의식적 욕망 등 21세기 어린이·청소년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작품들이 드물고, 그만큼 다양하지 못한 점은 한계로 보인다.